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22~23)

1. 한일 총리회담 관련

□ [동향]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였으며, 24일 11시 아베 총리와 면담할 예정¹⁾

□ [일본 언론 동향]

-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일 총리간 회담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번지고 있다” 고 보도²⁾
- 일본 정부는 현재 한일 관계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단, 이 총리는 한국 정부의 2인자이며, 이번 회담이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총리간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또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한 각료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총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
-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연대가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 이상의 대립은 피해야 한다” 며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견해도 대두
- 시즈오카(静岡) 신문은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의 골이 깊으며, 양국 정부 모두 자국내 여론을 의식, 간단히 양보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시간의 회담으로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번지고 있다” 고 보도³⁾

1) 「이총리,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韓정부 축하 뜻 전달」 『연합뉴스』 (2019. 10. 22). 및 「이총리, 내일 오전 11시 아베 면담...'한일 대화 동력' 확보 주목」 『연합뉴스』 (2019. 10. 23).

2) 「きしむ日韓：「首相会談」打開望めず 韓国ナンバー2きょう来日」 『毎日新聞』 (2019. 10. 22).

- 동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은) 어디까지나 즉위식 참석이 주된 목적이며, 사실상 왕실의 초대 손님” 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
- NHK는 24일 아베 총리와의 회담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친서에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현 상태의 타개를 도모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망⁴⁾
- 또한 NHK는 친서 및 지일파로 알려진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을 1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로 이어갈 의중으로 보인다고 평가

2. 일본의 9월 대한국 수출 감소 관련⁵⁾

□ [동향]

- 재무성이 21일 발표한 9월 무역통계에서 대한국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약 15% 이상 감소하였는데, 주로 식료품(-62.1%), 자동차(-48.9%)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

□ [일본 언론 동향]

- 아사히(朝日)신문은 수출 감소폭이 큰 식료품,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들이 대한국 전략의 재고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라고 논평
- [맥주] 삿포로맥주는 고가격대의 ‘에비스 맥주’ 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동 회사의 홍보담당자는 “불매운동이 빨리 진정되기를 바란다” 고 발언함.
- [치즈] ‘Q·B·B’ 브랜드의 치즈를 생산하는 롯데코버터는 한국에서 치즈 판매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단념함.

3) 「日韓対立改善 見えぬ糸口 即位礼に合わせ両首相会談へ 徴用工問題 溝深く」 『静岡新聞』 (2019. 10. 22).

4) 「韓国首相 安倍首相との会談でムン大統領の親書手渡すことに」 『NHK NEWS WEB』 (2019. 10. 22).

5) 「対韓輸出、食料品6.2%減 不買運動、車も4.8%減 9月前年比」 『朝日新聞』 (2019. 10. 22).

- * 동사는 2018년 11월에 한국기업과 업무제휴를 실시, 판로를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한국 수출이 모두 정지 상태임. 홍보담당자는 “한일 관계 악화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확산이 수출 정지의 이유”라고 설명
- o [자동차] نيسان자동차도 한국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간부는 “확실히 한국 현장에서의 반응은 엉망이며 이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라면서도, “지금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도 크며,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장